



DASARANG

인천다문화신문 · 다사랑
Incheon Multicultural Society Newspaper

www.dasarangnews.com

Wanted dasarang 032)881-9441

11 2015
November

仁川市扩大多文化家庭支援

인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한다

2015年第2次仁川市多文化家庭支援协议会举办

2015년 제2차 인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개최

01 多文化热点新闻 다문화 핫 뉴스

02 市政消息 시정소식
地区企业实体开展
“升仁川市旗”运动
지역 기업체 ‘인천시기달기’ 운동 전개

03 了解仁川 인천바로알기
仁川8大战略事业
인천 8대 전략사업

04 多文化焦点 다문화 포커스
富平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
茶礼教室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례교실

05 多文化广场 다문화 광장
卡里塔斯移民文化中心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

06 多姿多彩的多文化
다문화 이모저모

07 信息园地 정보마당

08 采访 인터뷰
仁川联队支持者亚当先生
인천유나이티드 서포터즈 아담 씨

09 传承传统
‘裱贴匠’
전통손길 ‘한글’

10 旅游 여행
天高马肥的季节之美食旅行
천고마비의 계절, 미식여행

11 本月的演出
이달의 공연

12 广告 광고



仁川市将扩大明年的多文化家庭支援计划。上月16日召开的“2015年第2次多文化家庭支援协议会”中，仁川市表示：明年多文化家庭的支援重点将放在满足结婚移民者的需求上。

今年仁川市的多文化家庭支援事业通过有关机构之间的合作项目，扩大了财政支出和效果。当天的协议会中介绍了与之相关的8个具体项目以及教育厅和子女学习指导项目调整等，并探讨了明年的支援计划。

以长期定居在国内的结婚移民的具体实际开展支援为指导方针，2016年新增或扩大的事业有地区社会沟通活动，社会整合支援、运营仁川外国人综合支援中心(暂称)等。此外，针对子女成长、配偶老龄化、就业问题等人生各时期不同的服务需求，认识与之相对应的服务对策的必要性，并计划多方面展开探讨。

钱圣水行政副市长说：“在多文化家庭政策推进10周年之际，以此前的成果为基础，现在是要为更美好的未来10年着手做计划做准备的时候了。多文化家庭不是特殊的家庭，而

是多种形态家庭中的一员，为了让他们在我们的社会中安定居住并发挥力量，要切实构建社会团结的基础。副市长在强调的同时还嘱咐在各机关合作的基础上，更积极开展政策提案和协作。

“多文化家庭支援协议会”是在2011年为了促进多文化家庭支援主要政策的协商及调整组建的。仁川市行政副市长作为委员长，并由保健福利局长担任副委员长，市议员1名、多文化家庭支援有关机构推荐者3名、市民·社会团体代表3名、结婚移民者3名、文化相关专家3名等共15人组成。

인천시가 내년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확대한다. 지난 16일 열린 ‘2015년도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서 인천시는 내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결혼이민자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한해 인천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재정절감 및 효과를 증대시켰다. 협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8건의 실적사례, 교육청과 자녀학습 멘토링 사업 조정 등을 소개하고, 내년도 지원계획을 모색했다. 국내 거주가 장기화된

결혼이민자 상황에 맞춰 지원할 방침이다.

2016년도 신규 및 확대되는 사업은 지역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사회통합지원, 결혼이민자 역량배양 시스템 강화, (가칭)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더불어 자녀의 성장, 배우자의 노령화, 취업문제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 10년을 대비할 계획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다문화가족이 특별한 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반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제언 및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지난 2011년 구성됐다.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맡았다. 시의원 1명,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 추천자 3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결혼이민자 3명, 다문화관련 전문가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발행일 2015년 10월 10일
편집장 김민영
취재 이연옥, 차지은
번역 천지아, 인하대 MCE BK
행정간행물신고번호 인천종라00009
디자인·제작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 다사랑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T. 032-440-8305

차지은 기자
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地区企业实体通过升挂仁川市旗开展“爱仁川”运动

지역 기업체 인천시기(市旗) 달기로 ‘인천사랑’운동 전개



인천광역시



爱仁川运动市民协议会(以下简称爱仁川)正式启动了开始于韩国NIK-KEN(株)的地区企业实体悬挂仁川广域市市旗的运动。上个月14日位于南洞工业园区的韩国NIK-KEN(株)举行了“爱仁川!企业实体升仁川市旗仪式”。当天的仪式,刘正福市长、爱仁川会长柳弼祐、仁川商工会议所会长李姜绅、韩国NIK-KEN(株)社长哇卡伊

等50多人参加了此次活动。

该公司从很久以前就开始悬挂仁川市旗。在工厂升市旗是因为日本人哇卡伊休子对地区的爱。1986年在仁川设立工厂的哇卡伊社长从2002年开始每天都举行升仁川市旗仪式。他的公司在机械制造领域成为中坚企业可以说离不开地区的支持,没有地区的帮助,这是不可能的事,为了表达感谢开始了升市旗的运动。他还自费每年拿出1000万元捐赠仁川大作为奖学金以此表达他对地区特别的爱。哇卡伊社长在副会长座谈会上提议向仁川企业实体普及升市旗运动,他是该运动的倡导人。

仁川市和爱仁川计划今年内在120多个企业实体处升仁川市旗,到明年上半年预计达到1000多个企业实体升市旗的规模。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이하 인사랑)는 한국넛켄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체에 인천광역시기(市旗) 달기 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달 14일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국

넛켄(주)에서 ‘인천사랑! 기업체 인천시기(市旗) 게양식’을 개최했다. 이날 게양식에는 유정복 시장,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와카이 슈지 한국넛켄(주) 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인천시기를 게양했다. 시 깃발이 공장에 게양되는 것은 일 본인 와카이 슈지(76) 사장의 지역 사랑 때문이다. 1986년 인천에 공장을 설립한 와카이 사장은 2002년부터 매일 인천시기를 게양해 왔다. 그는 회사를 기계제조 분야에서 중견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고마움의 표현으로 시기를 달기 시작했다. 사비를 털어 매년 인천대에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할 정도로 그의 지역 사랑은 남다르다. 와카이 사장은 부회장단 간담회에서 시기를 인천지역 기업체에 보급해 게양토록 하자고 제안한 장본인이다.

인천시와 인사랑은 올해 안에 기업체 120곳에 시기(市旗)를 게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천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김민영 편집장

金珉煥 主編 · gem0701@hanmail.net

仁川即时放送 + 인천나우

松岛弥邹忽塔内Talk House对外

仁川观光公社为了搞活市民参与型旅游,提供国内外市民民间交流的场所,Talk House(松岛弥邹忽塔17层)重新对外。Talk House计划每月组织600余名国内外市民参加自发组织观光学习聚会,面向居住在仁川或来仁川访问的外国人宣传仁川并搞活探访仁川观光仁川的体验团(Discover Incheon, Travel Incheon)。凡年满19岁的仁川市民,都可以参加Talk House。

송도미추홀타워 내 토크하우스 오픈

인천관광공사는 시민참여형 관광을 활성화 하고, 내·외국인 시민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토크하우스(송도 미추홀타워 17층 소재)를 새로이 오픈했다. 월 600여 명의 내·외국인 시민이 모여 자발적으로 관광스터디모임에 참여하며, 인천에 거주 또는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들을 위해 인천을 홍보하고 관광지를 함께 탐방하는 인천관광 체험단(Discover Incheon, Travel Incheon)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토크하우스는 만 19세 이상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仁川国际校区再引进 “世界前50位大学中的5所大学”

目前世界前100位的大学中有4所大学在仁川松岛国际都市的仁川国际校区设立了分校,仁川经济自由区厅计划,截止到2022年,再引进5所世界前50位的大学。得益于永宗地区为中心的综合度假村建设的积极推进,随着康奈尔大学之后,引进美国国内酒店管理领域排在第2位的拉斯维加斯州立大学的方案正在积极推进中。此外,俄罗斯国立音乐

大——圣彼得堡肯西巴托利分校在仁川国际校区设立的方案也在协商中。

글로벌캠퍼스 '세계 50위권 대학 5곳' 더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세계 100위권 대학 4곳이 분교를 설치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2022년까지 세계 50위권 대학 5곳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영종지구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건설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코넬대에 이어 미국 내 호텔경영학 분야 2위 대학인 라스베이거스 주립대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러시아 국립음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 분교를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김민영 편집장

金珉煥 主編 · gem0701@hanmail.net

胜过言语的“共鸣”

말 한마디 보다 소중한 ‘공감’

富平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 茶礼教室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례교실

要作为韩国人生活,但韩语生疏,礼仪习惯不同,身边意想不到的误会和偏见又非常强烈,令人无所适从。中立入境子女们的混乱不是什么人的错,环境变化,徘徊迷茫也是理所当然。但比起追究为什么还没快点找到适应的路,对他们携手倾听更为重要。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한국말은 서툴고 예절법도 다르다. 예상치 못한 오해와 편견이 따갑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중도입국자녀들의 혼란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헤매는 것은 당연지사. 왜 길을 빨리 찾지 못하느냐고 다그치기 보단, 귀 기울이고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孩子们的教育问题一直以来是议论话题。看待多文化家庭子女们的态度是一方面,同时提供正确的文化素养积累的机会不足也是现实。富平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的茶礼教室将孩子们召集到一起,这里几乎是管辖区域内hannuri学校或民间团体之外孩子们的唯一场所。去年在YWCA赞助下开始的茶礼教室以中途入境子女为对象提供韩语教室、礼仪教育、现场体验等支援。今年开始在没有了支援金的情况下开始以青少年自助聚会形式运营。没有了讲课费,茶礼教室的韩盛君(中国)讲师义务才艺奉献。多文化讲师韩女士笑着说:“孩子们的心比什么都重要,我放弃的话,即便其他老师愿意来孩子们也需要新的适应时间,我没法放弃孩子们。虽然说是才艺奉献,但是我在内心得到的更多。”她还说:“比语言重要的是社会性。我希望孩子们在这里适应韩国生活帮助他们培养社会性。”

由5名初高中生组成的茶礼教室开展着多样的活动,每周四4点半开始到6点半为止。虽然会根据学校日程变更授课时间,但是基本没有取消过上课。

对没有上学的尹洞(17岁,中国)来说,茶礼教室是唯一的学校也是唯一的社会生活。“因为没有上学,还



没感到特别的不便之处。只是因为语言问题基本没有结交朋友的机会。但是因为来到茶礼教室,这个问题解决了。老师有的时候是朋友,有的时候是姐姐,有的时候是老师。不管什么事都热情主动地帮助我。”她害羞地如此说。

通过韩国语、料理、文化探访等多种形式让孩子们了解韩国。特别是每到周末,参加地区社会活动,提供了社会参与的机会。最近开展了羽毛球授课,安排了可以一起运动的时间。虽然上课用韩语是基本,但目前都是由中国学生组成,因此是以中国语授课中。舒适并自然而然地了解韩国是茶礼教室走近孩子们的方法。对于中立入境的子女们来说,需要的不正是这种共鸣吗?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시선이지만, 올바른 문화소양을 쌓을 기회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례교실이 아이들을 모았다. 한누리학교나 민간단체를 제외한다면 관내에서 거의 유일하다. 지난해 YWCA의 후원으로 시작된 다례교실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실, 예절교육, 현장체험 등을 지원한다.

올 해부터는 지원금 없이 청소년자조모임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감사비 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승균(중국)씨가 재능기부를 자처했다.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한 씨는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그만두고 다 른 선생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재능기부라고 하지

만 제가 마음으로 얻는 것이 더 많아요.”라며 웃는다. 그녀는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성이예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한국에 적응하고 사회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중·고등학생 5명을 정원으로 다례교실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주 목요일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학교 일정에 따라 시간변동도 있지만 수업이 취소 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윤동(17, 중국) 양에게 다례교실은 유일한 학교이자 사회생활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다만 언어가 어렵고 친구를 사귀 기회 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다례교실을 다니면서 해결됐어요. 선생님은 때론 친구 같고, 언니 같고, 선생님 같아요. 어떤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도와주세요.”라며 수줍게 말한다.

한국어, 요리, 문화탐방 등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한국을 알아간다. 특히 주말이면 지역 행사에 참가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드민턴 수업을 추가해 다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수업은 한국어진행이 기본이지만, 중국출신 학생들로만 구성돼 있을 땐 중국어로 진행 중이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알아가는 것, 다례교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다. 중도입국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같은 공감이 아니었을까.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仁川自来水事业本部, 泰国公务员受邀研修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태국공무원 초청연수



仁川自来水事业本部首次设立了面向海外传授先进技术的事业。今年4月,邀请了泰国自来水厅水质部公务员Varanya Boonratn (26岁)女士,开展了K2H (Korea Heart to Heart)项目。K2H项目是全国市道知事协议会和地方自治团体共同主办的邀请外

国地方公务员来韩研修,研修期间提供80万韩元的生活费并提供住宿。今年4月来韩的Varanya在水质研究所职员帮助下,进行了173个水质项目分析、学习了高度处理新工艺、并参观了净水场运营设施等。她说:“为了让泰国市民们也喝上和韩国人一样的水

生命和环境，我们生存的基础

생명과 환경, 우리가 살아갈 터전

카리타스移民文化中心 가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

“我们”所内涵的共同体认识是必要的，尊重生命和重视环境才是幸福生活的一种方式。在新的家园，这是不是也是他们所寻所想？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닐까.

位于南东区延寿洞的卡里塔斯移民文化中心，是卡里塔斯修女会在2004年设立的非营利团体，一直由两名修女和志愿者们运营着。10多年前以移居劳动者为对象而开始的中心目前服务对象已经扩大到移民女性和新移民。平日上午10点开始到下午1点为止，举行以新移民女性为对象的活动，为了能让移民女性集中精力听课，还有自愿服务者们帮忙照顾孩子。

中心目前正在致力于环境和生命相关问题的活动。中心主任柳玉静介绍说：作为自己的第二故乡，美化生活家园也是重要的。基于此，目前正在开展与生活合作组织相关的资源再利用活动、烹饪活动等。另外，随着法务部社会综合计划分阶段实施，中心还安排了不同水平级别的韩语教室，韩语教室的满意度特别高。

潘妮杜华（越南，PHAM THI TO HOAI）说：“2年前通过朋友的介绍来到这里，以前在一般的多文化中心学过韩语，因为学习的人很多老师很难一对一解释，而这里一个班还不到10个人。目前还应进一步学习，发音已经好很多。还有，这里还可以帮忙照顾孩子，这样可以集中精力学习。而且听说等孩子大了，还可以辅导孩子学习。这应该会让妈妈和孩子更融洽，所以已经很期待了。”



中心以移民和孩子们为对象的教育活动在多方面地开展中。随着高龄人口的流入增加，还提高了对中途入境子女教育问题的关注度。星期天下午1点到3点的多文化学习室，以中途入境子女为对象，开展1对1学习指导。同一天下午3到5点是针对移居劳动者的韩语教室。

中心主任柳玉静说：“最近地区内帮助移居劳动者的机关多了起来。我们计划去寻找那些得不到特别帮助的移民劳动者。”柳玉静主任表示：“帮助移民的目的是什么也很重要，我们的目的是基于环境和生命这个焦点，作为这片土地的主体，为共建家园而努力。”

남동구 연수동에 위치한 가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 가리따스 수녀회에서 2004년 비영리단체로 설립했다. 두 명의 수녀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 10여년 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센터는 현재 이주여성, 새터민 등까지 이용대상자를 확대해 왔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주여성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

센터는 환경과 생명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제 2의 고향으로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유옥경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에 발맞춰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한 자원 활용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실시되며, 수준별 한국어교실도 마련돼 있다.

특히 한국어교실의 만족도가 높다.

팜티또화이(베트남, PHAM THI TO HOAI)씨는 “2년 전 친구 소개로 이곳에 왔어요. 일반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수강생이 많다보니 선생님이 한 명씩 봐 줄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한 반에 학생이 10명도 안돼요. 아직 공부하는 데 해야 하지만, 발음도 많이 좋아졌어요.”라며 “또, 아이들을 봐주셔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크면 학교 공부도 봐주신대요. 엄마랑 아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기대가 돼요.”라고 전한다.

센터는 이주민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의 유입이

늘어 중도입국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다문화 공부방을 운영하며,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1:1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이 열린다.

유옥경 센터장은 “최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돕는 기관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센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의 이주노동자를 찾아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 센터장은 “이주민을 돕는 목적 또한 중요합니다. 환경과 생명에 포커스를 맞춰 그들이 이 땅의 주체로서 삶의 터전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전한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而努力。来韩国学习对泰国来说是很大的帮助。”Varanya已于10月份完成了所有日程返回泰国。

仁川自来水事业本部是1906年建设的最早的近代自来水设施。现计划以此次研修成果为基础，扩大面向发展中国家地方公务员传授水道技术的事业。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설립 최초로 선진 기술을 해외에 전수했다. 지난4월 태국 수도청 수질부 공무원 ‘와란야 분랏(Varanya Boonratn)’씨(26)를 초청해 K2H (Korea Heart to Heart)프로그램을 진행했다. K2H프로그램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으로, 연

수기간동안 생활비 80만원과 숙소를 제공한다. 지난 4월 입국한 와란야 씨는 수질 연구소 직원들의 도움으로 173개 수질항목 분석, 고도처리 신공법을 실습하고 정수장 운영시설 등을 견학했다. 와란야 씨는 지난 10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1906년

설치된 최초의 근대 상수도시설이다. 이번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저개발국의 외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수도 기술전수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多姿多彩的多文化

다문화 이모저모

中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开展了多文化认识改善事业“大家多 我们多”的活动。第三期活动联络地区儿童中心，以小学生为对象，开展了学习中国、日本、非礼宾文化的活动。以体验各国传统服饰和传统游戏为主的此次活动帮助孩子们自然而然地对多元文化产生关心。此后，中心还计划到老人福利设施开展多文化认识改善事业。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모두다(多) 우리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회에 걸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의 문화를 알렸다. 전통의상 및 전통놀이 체험을 위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이후 센터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东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和结婚移民女性们一起访问了船桥传统工艺商业街。10月份一个月内先后五次体验了皮革工艺、传统工艺。通过体验韩国的传统，为结婚移居女性们提供了更亲切直观了解韩国文化的契机。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배다리전통공예상가를 방문했다. 10월 한 달간 다섯차례에 걸쳐 가죽공예, 전통공예를 체험했다. 한국의 전통체험활동을 제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西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以结婚移民女性为对象提供文化生活机会。本月19日在西区文化会馆举行的《咖啡香满brunch音乐会》青春萨克斯管演奏S.with的演出。按报名先后，参加名额为10名。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19일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커피향 가득 브런치콘서트>의 청춘 색소폰 앙상블 S.with의 공연을 관람한다. 참가자 10명은 선착순 모집한다.

延寿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正在运营“十匙一饭菜园”自助聚会。通过五个家庭共同栽培，培养共同体意识分享收获的喜悦。从4月开始的聚会到今年11月为止每周六开展。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십시일반 채소밭’자조모임을 운영 중이다. 다섯 가정이 공동 텃밭을 가꾸며 공동체 의식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모임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富平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在富平风物庆典(10月3日~4日)中运营了体验展位。在富平文化街一带举行的富平区最大的庆典中以市民们为对象展示各国文化生活用品并开展多文化体验。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달 부평풍물축제(10월 3~4일)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부평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펼쳐진 부평구 최대 축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생활용품을 전시하고 다문화체험을 진행했다.

富平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正在推进“爱心泡菜分享接力”。11月11日将在富平公园举行的该活动，计划以100多户低收入多文化家庭为对象，每户配发10公斤泡菜。活动将从上午7点30分开始，持续到下午3点。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를 추진한다. 오는 11월 11일 부평공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저소득 다문화가정 1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김장김치 10kg씩 배부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

南东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参加了10月25日召开的第1届南东区多文化家庭日的活动。当天东南和声中心前的广场上举行的活动包括多文化家庭、外国人、库页岛同胞、新居民和非多文化家庭等共2500余人参加，盛况空前。南东区制定的多文化家庭日是每年的10月20日。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열린 제1회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남동하모니센터 앞 광장

에서 개최된 행사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외국인, 사할란동포, 새터민, 비 다문화가정 등 2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남동구에서 정한 다문화가정의 날은 매년 10월 20일이다.

南东区多文化家庭支援中心以“寻找我的人权”为主题开展了生活法律教育。10月27日开展的教育是以20名结婚移民者及配偶为对象，针对在韩生活中的困难和其解决方案进行了交谈。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나의 인권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7일 진행된 교육은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江华郡多文化家庭支援中心为迎接腌制泡菜的季节而举行的江华虾酱庆典(10月11日)中开展了市民认识改善活动。以从全国各地赶来的游客以及地区居民为对象，提供了介绍越南、中国、菲律宾传统游戏并开展文化体验的机会。另外，通过中心内自助聚会的演唱表演，安排了和地区居民交流的时间。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김장철을 맞아 열리는 강화새우젓축제(10월 11일)에서 시민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의 전통 놀이를 소개하고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센터 내 자조모임의 노래공연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차지는 기자
车智恩 记者 · minsable@hanmail.net

仁川市多文化相关机关联络处

인천시 다문화관련기관 연락처

仁川市厅多种文化政策课
인천시청 다문화정책과 ☎ 032-440-2866
仁川广城市의 남동구 九月洞 1135 - 11 park avenue大厦7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11 파크에비뉴빌딩 7층

中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91-1094
仁川广城市의 中区 济物梁路122踏洞信协大厦4楼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22 담동신협빌딩 4층

桂阳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41-2860~1
仁川桂阳区桂阳山路102号路5 社会福利会馆3楼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南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75-1577
仁川广城市의 市郡城路189 5楼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89 5층 (학익동)

南东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67-3912
仁川广城市의 南洞区 苏来路645号 南洞福利馆2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복지관 2층

富平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11-1800
仁川广城市의 富平区 Yeorumul路103 十井1洞办公楼7层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03 십정1동 청사 7층

延寿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51-2740
仁川广城市의 延寿区 清陵大路109탑피온大厦4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109 (탑피온빌딩 4층)

西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60
仁川广城市의 西区 景明大路693号路6 (公村洞305 - 13)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공촌동 305-13)

东区多文化家庭援助中心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773-0297
仁川广城市의 东区 花岛镇路44号路21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44번길 21

江华郡多文化家庭援助中心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 933-0980
仁川广城市의 江华郡 江华邑北门路11 -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를 북문길 11-1

仁川外国人力支援中心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 032-431-5757
仁川广城市의 南洞区 论岬洞636-3 明真大厦12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6-3 명진프라자 12층

Incheon Hannuri School
인천한누리학교 ☎ 032-442-2102-4
仁川广城市의 南洞区 论岬洞640-2 Hannuri学校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0-2 인천한누리학교

韩语很生疏吗?

한국어가 서툴다면?

母语电话咨询服务 모국어 전화상담 서비스



讲外语不是一件容易的事,尤其是不经常使用的话更是不容易。在外国,生病的时候总是因为语言障碍而障碍重重,如果韩语实力还有待提高,那就找翻译帮忙吧。

为在韩韩语生疏的滞留外国人提供翻译服务。致电呼叫中心,选择相应语言后就会连通咨询员。可提供服务的语言有韩国语、英语、汉语、越南语、走语、高棉语、蒙古语、俄语、日

语、泰语、乌兹别克斯坦、尼泊尔、老挝等。

还有专门针对移居劳动者的呼叫中心,外国人力咨询中心(1577-0071),上午9点到下午6点为移居劳动者及雇主提供咨询服务。有17种语言可以选择,提供同声翻译三方通话、相关法律咨询、文件翻译等多种有针对性服务。

모국어가 아닌 언어는 늘 어렵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외국에서 몸이 아플 때면 늘 부딪히게 되는 언어의 벽, 당장의 한국어 실력을 늘릴 수 없다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보자.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는 한국생활 적응, 취업, 교육복지혜택 등의 정보를 제

공한다. 특히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다국어로 정보를 안내해 준다. 한국어가 서툰 체류 외국인이라면 통역서비스도 가능하다. 콜센터로 전화한 후, 해당언어를 선택하면 상담원이 통역을 해준다. 서비스 가능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파갈로 그어, 크메르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네팔어, 라오스어 등이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콜센터도 있다.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주노동자 및 고용주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3자 통화통역, 관련법률상담, 문서번역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는 17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글·사진 차지는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在为各种资格证和考试学习吗? 来这里一起备战吧!

각종 자격증, 시험공부 여기서 준비하자!

仁川市民网络教育中心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又是工作又是生活,但要以没有时间借口觉得自我开发是不可梦想的。仁川人才开发院为了给市民平生学习的机会,运行了“仁川市民网络教育中心”,提供语言、休闲、教育、资格证等相关的多方面讲座。

仁川市民网络教育中心(<http://cyber.incheon.kr>)上所有的课程都是免费的,有英语、汉语、俄语等多种语言讲座15个,还开设了13个最有人气的资格证相关课程。生活常识、历史、兴趣修养相关的104个课程的用户数也很高。外语会话、计算机应用能力考试和韩国语能力考试等课程很受上班族的欢迎。仁川市民网络教育中心还构建了移动终端,以便繁忙的上班族和学生能随时随地学习。听课

申请没有限制,一年之内要完成课程的60%以上才能被认定为结业。

일하랴, 살림하랴. 자기계발은 꿈도 못 꾸다며 시간을 핑계삼는다. 인천인재개발원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어학, 취미, 교양, 자격증 등 다방면의 강의를 제공한다.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incheon.kr>)에선 모든 강의가 무료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국가의 어학 강의를 15개 과정, 최신 인기자격증도 13개 과정이 개설돼 있다. 생활상식이나 역사, 취미소양에 관련된 104개 과정도 수요가 높다. 특히 외국어 회화 및 컴퓨터활용능력시험, 한국어능



력시험 등이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다.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는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해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 및 학생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

게 됐다. 수강은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연중 60% 이상 수강해야 수료로 인정된다.

글·사진 차지는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以体育充实在仁川的生活

스포츠로 다진 인천생활

仁川联队支持者亚当先生
인천유나이티드 서포터즈 아담 씨

坦率不做作，一副热爱足球的英国青年面貌，这就是他。穿着仁川联队队服特别合适，足球是他在仁川生活中不可或缺的部分。作为仁川联队的支持者，适应着在仁川的生活，他来这里已经七年，他的竞技场就是仁川。

그는 솔직했고, 꾸밈이 없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영국 청년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인천유나이티드 유니폼이 잘 어울렸다. 그에게 축구는 인천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인천유나이티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인천에 적응할 수 있었다. 벌써 7년차, 그의 그라운드는 인천이다.

英国青年助威仁川

眼睛炯炯有神，在英语和韩语混合的采访期间，他的眼睛一直是那么坦诚，这就是亚当·理查德逊。当问他多大，他会很韩国人方式地回答：

“是韩国年龄还是英国年龄？我是84年出生的。”。他今年31岁，六年前来到韩国，那时20多岁。从足球盟主英国而来的青年，在6年前成为仁川联队的支持者。

“为了解思乡病，找到了足球。足球对我来说很重要，它可以让我产生集中的关注力。仁川足球队FA杯竞技中胜出的情景至今是无法忘记的感动。”

比赛结束后遇见了他。最近仁川联队的成绩呈上升趋势，出现了很多新的支持者。亚当是只要有时间，就算客场作战也不会缺席的热血粉丝。

“看着仁川联队成长的样子，是观看比赛的乐趣。到竞技场看比赛要比通过电视观看更加有意思。在英国时也是经常观看足球的。EPL是世界顶级联赛，门票价格也是一场比赛10万元的贵。但是到了仁川，联队赛季票价格便宜还能交朋友。所以一

到比赛的日子就去比赛现场。”

足球对于住在仁川的亚当来说既是兴趣爱好也是生活的全部。他在仁川最先做的事就是成为职业足球队仁川联队的正式拉拉队，他通过在韩国遇到的英国朋友的介绍加入仁川联队支持者，得益于此，亚当在仁川结识了各种各样的人。

“支持者是一个可以沟通交流的空间，人们聚在一起，因为共同喜爱一项体育活动而建立了深厚的友情。一个人看比赛，不管输赢都没什么意思的，和朋友们一起在赛场上看才有趣。“朋友”是看比赛过程中很重要的一点。通过支持体育活动，不仅可以结交外国朋友，还可以结交韩国朋友。在外国生活，一个小小的共同点都可以成为朋友。足球对我，就是和大家连接的媒介。”

영국 청년, 인천을 응원하다

눈빛이 반짝였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인터뷰 내내 그의 눈은 진솔했다. 아담 리차드슨. 나이를 묻자 “한국 나이로, 아니면 영국 나이로요?”라며 되묻더니 “84년생”이라고 한국식으로 대답한다. 올해로 31살. 6년 전 한국에 와서 서른을 넘겼다. 축구 중



주국 영국에서 온 청년이 인천유나이티드 서포터즈가 된 것도 6년 전의 일이다.

“향수병에 대한 대체물로 축구를 찾은 거죠. 집중할 수 있는 관심사가 생겼다는 게 의미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천 축구팀이 FA컵 결승 진출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건 잊지 못할 감동입니다.”

경기 직후 처음 그를 만났다. 최근 인천유나이티드 성적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서포터즈도 신이 난 분위기였다. 아담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원정경기까지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열혈 팬이다.

“인천유나이티드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TV로 보는 것보다 경기장에 와서 보는 게 훨씬 재밌죠. 영국에서도 정기적으로 축구관람을 하곤 했어요. EPL은 세계최고리그예요. 티켓 가격도 한 경기에 10만원 꼴로 비싸요. 그런데 인천에 와서 보니 유나이티드 시즌권도 저렴하고 친구도 사귄 수 있었어요. 경기가 있는 날엔 항상 경기장에 오려고 해요.”

축구는 아담이 인천에 살며 얻은 취미이자 생활의 전반이다. 그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천시 프로 축구팀 인천유나이티드의 공식 응원단, 인천유나이티드 서포터즈에 가입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만난 영국인 친구의 소개였다. 그 덕에 아담은 인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서포터즈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스포츠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우정을 쌓을 수 있어요. 혼자 보는 경기는 승패와 상관없이 재미없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보는 게 재미있어요. ‘친구’가 경기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외국친구들은 물론 한국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외국생활을 하면, 작은 공통점으로도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제게는 축구가 그런 매개체였죠.”

向目标奔跑

“我亲身经历了仁川在过去6年的发展。来到韩国后，从来没有想离开仁川的想法。离首尔近，还很安静。特别是得益于黔岩那边的桂阳山，空气还很好。阿拉航道因为就在前面，所以经常去，那里是汉江公园无法相比的。如果我一直留在韩国的话，会毫不犹豫地继续选择仁川。”

他说仁川是他的第二故乡。过去在仁川遇到的人们的记忆造就了现在的他。2007年他毕业于伦敦大学的国际关系学专业。因为希望在国际



救援机构工作，这个梦想引领着他到了马达加斯加。做了三个月的志愿者后，为了丰富国际经验，他来到了韩国，希望了解包括南北问题等多样的韩国经验。

“那时受聘于黔岩洞的一所英文学院，在那里开始了在韩国的生活。”当时是2009年3月。“那个时候很紧张，因为谁都不认识，在最初的3个月，累得无法入睡。但是英国有‘STIFF UPPER LIP’的俗语，当时想最少也得忍受一年，后来过了6个月就很适应了。”

当时的院长过了3年后成了妻子，因此他的工作签证改成了结婚签证。在韩国有了一定的适应，也感受到了多种文化的差异，有时还会感到作为“外国人”的局限性。

“韩国真的很好。韩国人、韩国饮食、韩国文化都很好。但是也有麻烦的地方，总是感到这里是对外国人封闭的地方。如果没有妻子的话，我呆个一两年就走了，没想到一呆就是6年。她是我在韩国得到的最重要的人。”

每次感到累的时候，抓着我的手的就是我的妻子。亚当·理查德逊的支持者正是他的妻子。现在他又向自己

的梦想迈进了一步，现在的他在英国的大学院攻读国际人类交流学(international humanity affair)的硕士学位。希望就职于国际救援机构的他正向着目标前进。

꿈을 향해 달린다

“인천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난 6년 동안 다 보았어요. 한국으로 온 이후 한 번도 인천을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서울과도 가깝고 조용해서 살기 좋아요. 특히 검암 쪽은 계양산 덕분에 공기도 좋아요. 아라뱃길이 바로 앞에 있어서 자주 가는데, 한강공원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한국에 제가 계속 있게 된다면 망설임 없이 인천을 선택할 거예요.”

그는 인천을 제2의 고향이라고 했다. 지난 시간 인천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추억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2007년 런던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국제구호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은, 그의 발걸음을 마다가스카르로 이끌었다. 3개월간의 자원봉사 이후, 다양한 국제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 남북문제를 비롯해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그때 검암동에 있는 영어학원에 초빙됐어요. 한국에서의 첫 생활이 시작된 거죠.” 당시가 2009년 3월. 그렇게 인천에 첫 발을 디뎠다. “긴장된 시간들이었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처음 3개월 동안은 잘못지



도 못했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영국에 ‘불굴의 정신(STIFF UPPER LIP)’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적어도 1년은 버티자고 생각했죠.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편해졌어요.”

당시 원장은 3년이 지나 아내가 되었고, 그 사이 그의 취업비자는 결혼비자가 되었다. 어느 정도 한국에 익숙해지면서, 다양한 문화 차이와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다. 때론 ‘외국인’으로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한국 정말 좋아요. 한국사람, 한국음식, 한국문화 다 좋아요.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외국인에게는 단혀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와이프가 없었다면 전

1, 2년 만에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벌써 6년이 지났죠. 한국생활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힘들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아준 건 아내였다. 아담 리차드슨의 서포터즈, 아내 덕분일까? 그는 꿈을 향해 한발 더 내딛고 있다. 현재 영국의 대학원에서 국제인류교류학(international humanity affair) 석사과정 중이다. 국제구호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의 꿈이 다가오고 있었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章 照片·车智恩 记者·minsable@hanmail.net



传承传统 | 裱贴匠

让生命力再度焕发 “裱贴匠”

먼지가 된 시간을 회춘시키다 ‘배첩장’

时间会让一切事物老去，文化遗产也不例外，随着时间的推移而越发陈旧。贵重的国宝级书画却在抵挡着时间的侵蚀。揉皱翻折卷起，拿出核心部分，看似终将逝去的宝物经过“裱贴”的过程会再次焕发

生机。裱贴匠是将书画或刺绣做成挂轴、挂屏、屏风 and 书贴等的工匠。通过裱贴匠的手艺，突出了作品的美感价值，还给作品增加了实用性和保持性。现代人更熟悉的是“装裱”而不是“裱贴”这个词，但是裱贴匠的历史更久远。朝鲜时代，裱贴匠的配置是工曹2人，尚衣院4人，图书署2人，裱贴匠不仅负责给御真、书画和书籍装裱，还负责服饰类刺绣等装饰品。

裱贴的工作分为裱接、回装、补修三个阶段。裱接过程中有框架裱贴、主枝裱贴、绸缎裱贴、彩纸裱贴、主枝贴宫扇和封面的绸缎裱贴等。

시간은 모든 것을 늙게 한다. 문화재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간이 갈수록 낡아진다. 귀한 국보급 서화(書畵)에는 시간이 멈춰져 있다. 꼬깃꼬깃 접히고 말려서 살점을 내주며 임종을 앞 둔 보물들이 ‘배첩’이란 과정을 통해 다시 소생한다.

배첩장(裱貼匠)은 서화(書畵)나 자수(刺繡)를 족자, 액자, 병풍, 서첩 등으로 만들어 주는 장인이다. 배첩장의 손길을 통해 작품의 미적 가치를 돋보이게 하면서 실용성과 보존성까지 부여한다. 현대인들은 ‘배첩’이라는 단어보다 ‘표구’에 익숙하지만 배첩장의 역사는 깊다. 배첩장은 조선시대 공조(工曹)에 2인, 상의원(尙衣院)에 4인, 도화서(圖書署)에 2인이 배정되어 어진(御眞), 서화, 서적의 배첩 뿐 아니라 복식류의 자수와 같은 장식품도 담당하였다.

배첩 작업은 배접(裱接)·회장(回裝)·보수(補修)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배접에는 틀배접, 주지배접, 비단배접, 색지배접, 주지에 윤선붙이기, 표지의 비단배접 등이 있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章 照片·金珉模 主编·gem0701@hanmail.net

仁川的美食之旅

인천의 길을 맛보다

天高马肥的季节之美食旅行 천고마비의 계절, 미식여행

秋天是丰收的季节。当季的食物非常多，这是收获一年农作劳动果实季节。在天高马肥的季节，吃点什么呢？这是一种幸福的苦恼。那就一起找找仁川的海鲜野味吧！

가을은 풍요롭다. 제철 먹거리가 다양하고, 한 해 농사가 결실을 맺는 계절이다. 말도 살이 포동하게 오른다는 가을. 어떤 음식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이 이어진다.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인천의 먹거리를 찾아 길을 나선다.

大海环绕的江华岛

岛永远处在那里，历史的场面好像会在那里重现。著名的历史旅游胜地江华岛是距离市中心不远的一日游的好去处。江华岛划出19条旅行路线，可以根据主题旅行。从江华公共汽车站开始的观光路线途径甲串墩台、草芝镇抵达广城堡。除此之外还可以选择沙滩、海边、候鸟、工艺村等多种路线。根据路线的不同，可以看到不同的江华岛特色。虾酱、地瓜等秋冬特产非常丰富。最近盛行了20多年的螃蟹汤专卖店“忠南西山家”，随着电视采访的播出，附近的螃蟹餐厅都跟着提高了知名度。如果时间充裕，推荐到传灯寺悠闲地转转，品尝下用当季食物做的健康的斋饭也是不错的体验。还可以感受到满溢秋色的岛屿。

바다를 둘러, 강화도

섬은 늘 거기에 그대로였다. 역사 속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될 것만 같다. 역사 기행지로 손꼽히는 강화도는 도심과 근접해 당일치기 관광지로 제격이다. 19개 코스로 나뉜 '강화나들길'을 따라 테마별 여행이 가능하다. 강화버스터미널에서 시작되는 나들길은 갑곶돈대를 지나 초지진, 광성보까지 이어진다. 이밖에도 갯벌, 해변, 칠새, 공예마을 등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길을 따라 건다보면 다양한 강화 특산품을 만나게 된다. 특히 새우젓, 고구마 등 가을·겨울 제철 먹거리가 풍성하다. 최근에는 20년 넘게 영업 중인 꽃게탕 전문점 '충남서산집'이 방송을 타며 인근 꽃게 맛집들도 함께 유명세를 얻었다. 여유가 있다면 전등사에서 유유자적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제철먹거리로 만든 건강한 사찰 밥도 특별한 경험이다. 무르익은 섬의 가을은 덤으로 만나볼 수 있다.

时令美食, 苏来浦口

如果到了秋季就要吃斑鱚，连刺都变得酥脆，吃起来味道咸津津的，这才是秋季的代表美食。秋季盛产的不仅仅是斑鱚，大虾、花蟹、各种海产品随着秋季海边的波涛声一起涌来。苏来浦口海物丰盛，仁川大海的海产品和潮涌的人们让这里成为首都圈最大的鱼市场。连讨价还价声都显得愉悦的苏来浦口鱼市和附近的苏来沼泽生态公园以及苏来历史馆构造出一条旅游路线。这里保留有最早的盐田体验学习场所，海边也成为孩子们的生态游乐场。骑着自行车在秋风中飞驰也不错。再到苏来历史馆一起追忆一下连接水原和仁川的水仁线的窄轨火车吧。

제철 맛은, 소래포구

가을 하면 전어다. 잔 가지까지 바삭하게 익혀 먹는 짭짤한 맛이야말로 가을의 대표 먹거리다. 어디 가을의 맛이 전어뿐이라. 대하, 꽃게, 각종 해산물이 가을바다의 파도소리와 함께 밀려든다. 소래포구가 제철을 맞았다. 인천 바다의 전래와 사람이 뒤섞인 그곳은 수도권 최대 어시장이다. 흥정소리조차 경쾌한 소래포구 어시장은 인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역사관 등과 함께 관광코스로 자리 잡았다. 최초의 염전은 체험학습장으로 남았고, 갯벌은 아이들의 생태놀이터가 됐다. 자전거를 대여해 가을바람과 함께 달려보는 것도 좋다. 수원과 인천을 잇던 수인선 협궤열차의 기억은 소래역사관에서 추억해보자.



集万千美味于一处, 新浦市场

想于一处品尝万千美味的話就到新浦市场，这里是以炸鸡块、拌面、鱼饼串、烤章鱼串等丰富多彩的小吃而闻名的新浦市场。这里的流动人口越来越多，最近连新浦文化街道的胡同里都已经入住了连锁经营店。新浦市场是仁川创始饭店聚集地，甜辣的炸鸡翅、面条和饺子有名的青线红线、诞生劲道的荞麦冷面的新浦吾里饺子等。最近又出现了很多新的美食店，从市场小吃到高级甜点都有，连物美价廉的回转寿司也有。伴随着各种美食，一起感受仁川的旧日繁华，也是很有趣的经历。

맛에 집중하고 싶다면, 신포시장

다양한 맛에 집중하고 싶다면, 신포국제시장이 답이다. 닭강정, 쫄면, 핫바, 낙지호롱구이 등 다채로운 먹거리로 유명한 신포시장. 최근 신포문화의 거리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설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아졌다. 신포시장은 인천의 원조 맛집이 모여있는 곳이다. 매콤한 신포닭강정, 모밀국수와 만두가 유명한 청실홍실, 두툼한 쫄면이 태어난 신포우리만두 등이 그것이다. 최근엔 이와 더불어 다양한 맛집이 생겨났다. 시장표 간식들은 물론, 고급스러운 디저트까지 들어서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질도 좋은 회전초밥 집도 인기다.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인천의 옛 번화가를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章 照片·車智恩 記者·minsable@hanmail.net



仁川市立交响乐团定期演奏会 “皇帝和英雄”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황제와 영웅’



在仁川市立交响乐团第349次定期演奏会的舞台上流淌着乐圣贝多芬的序曲和钢琴协奏曲、交响曲的旋律。最先开始的是芭蕾舞曲《普罗米修斯》的序曲。此后,体现贝多芬音乐男性魅力的贝多芬第五钢琴协奏曲《皇帝》与钢琴家韩尚逸一同演出。最后是第3交响曲《英雄》。在景色宜人的深秋,通过满溢艺术节热情的贝多芬音乐,可以感受到战胜磨难的伟大英雄气节。

- 时间：11月20日(周五)下午7点30分
- 地点：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门票：R席1万元/S席7千元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제349회 정기연주회 무대에서는 악성 베토벤의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의 선율이 흐른다. 그 시작은 발레음악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의 서곡이다. 이후 베토벤 음악의 ‘남성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곡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피아니스트 한상일과 함께 연주한다. 마지막은 교향곡 ‘제3번 영웅’이 장식한다. 감수성이 눈뜨는 늦가을, 예술가적 열정으로 가득한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 시련을 이겨낸 영웅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 일시：11월 20일(금) 오후 7시30분
- 장소：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R석 1만원, S석 7천원

未来流行乐乐队 “solutions”

퓨처 팝 밴드 ‘솔루션스’

乐队“solutions”的音乐是在多种体裁的混合中声声入耳的旋律,如有动感变化的节奏,干练的声音彰显个性。可以说让人感到前所未有的惊喜,被评论为大胆革新,评论和大众的感叹扑面而来。作为4人组乐队诞生的solutions渴望给听众们奉上一个好的解答(solution)。

- 时间：11月20日(周五)下午8点
- 地点：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小演出场
- 门票：2万元

밴드 솔루션스의 음악은 다양한 장르가 혼재된 속에서도 귀에 잘 들어오는 멜로디, 탄력 있게 변화하는 비트, 세련된 사운드 프로덕션으로 스타일리시함이 돋보인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놀랍도록 혁신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평단과 대중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4인조 밴드로 거듭난 솔루션스가 목마른 리스너들에게 좋은 해답(Solution)을 들려줄 것이다.

- 일시：11월 20일(금) 오후 8시
- 장소：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전석 2만원



Calendar November

11 wed

再活用乐队音乐会 “欢乐的重要节日” 支持乐队

- 富开文化舍廊房
- 下午7点30分
- 五千元
- ☎ 032-507-5996

재활용밴드 콘서트
'신나는 생생페스타' 지지밴드

- 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 전석 5천원
- ☎ 032-507-5996

12 thu

Saeul歌曲和咏叹调的晚上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下午7点30分
- 招待
- ☎ 032-885-3611

새얼가곡과 아리아의 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 30분
- 초대
- ☎ 032-885-3611

14 sat

金昌完乐队演唱会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下午7点
- R席6万6千元、S席4万4千元
- ☎ 1588-2341

김창완밴드 콘서트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
- R석 6만 6천원, S석 4만 4천원
- ☎ 1588-2341

17 tue

动画片《玛雅》上映

- 仁川平生学习馆 多功能教室
- 下午2点
- 自由观看
- ☎ 032-899-1554

애니메이션 '마야' 상영

-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 오후 2시
- 자유관람
- ☎ 032-899-1554

18 wed

歌剧《吉赛尔》(Screen演出)

- 仁川平生学习馆 弥邹忽厅
- 下午7点
- 演出开始前10分钟入场
- ☎ 032-899-1516-7

오페라 '지젤'(스크린 공연)

- 인천평생학습관 미주홀
- 오후 7시
-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 032-899-1516~7

19 thu

咖啡香满 “brunch音乐会”

- 西去文化会馆大礼堂
- 上午10点
- 1万元
- ☎ 032-580-1198

커피 향 가득 '브런치 콘서트'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오전 10시
- 전석 1만원
- ☎ 032-580-1198

20 fri

哑剧 “移动的盘索里庆典” 盘索里工厂的地板声音

- 富平文化舍廊房
- 下午7点30分
- 五千元
- ☎ 032-505-5995

판토마임 '몸짓이 있는 판소리 한마당'

-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 전석 5천원
- ☎ 032-505-5995

21 sat

和市民在一起的公开音乐会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下午6点
- 招待
- ☎ 032-425-8767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6시
- 초대
- ☎ 032-425-8767

22 sun

Music Fly Plot管弦乐团定期演奏会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下午7点
- 招待
- ☎ 032-888-0808

뮤직플라이 플롯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
- 초대
- ☎ 032-888-0808

25 wed

文化之日 “SSONGER&GIRL GROUP”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下午7点30分
- R席9万9千元、S席7万7千元、A席为6万6千元
- ☎ 032-586-5868

문화가 있는 날 '송아&걸그룹'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 30분
-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A석 6만 6천원
- ☎ 032-586-5868

26 thu

弥邹忽银色管弦乐队&合唱团定期音乐会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下午7点
- 招待
- ☎ 032-457-5403

미주홀은빛오케스트라&합창단 정기음악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
- 초대
- ☎ 032-457-5403

27 fri

再见 高考! 轻松演唱会 “仁川乐队协会”

- 仁川平生学习馆弥邹忽厅
- 按顺序免费(11月13日上午9点起)

굿바이 수능! 출가본 콘서트 '인천밴드협회'

- 인천평생학습관 미주홀
- 선착순 무료
-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28 sat

姜福子话剧 《和娘家母亲的3天2夜》

- 仁川综合文化艺术会馆大礼堂
- 下午3时、7时
- R席7万7千元、S席6万6千元
- ☎ 1566-6551

강부자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3시, 7시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 ☎ 1566-6551

※ 이달의 전시회

2015 유네스코선정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지평 기념 특별 기획전
<명사와 시민이 함께 하는 애장 도서 100선>

- 일정：11월 9일(월) ~ 11월 29일(일)
- 장소：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
- 관람료：무료
- 관람시간：개관시간 10:00~18:00(입장은 17:30까지)
- 문의：032-455-7165 / http://lit.ifac.or.kr

※ 本月展示会

联合国教科文组织选定仁川为2015年世界图书都市之特别策划纪念展
“知名人士和市民一起选定的珍藏图书100选”

- 展示时间：2015年11月9日(周一)至11月29日(星期日)
- 展示场所：韩国近代文学馆企划展示室
- 参观费用：免费
- 参观时间：开馆时间10:00 ~ 18:00(入场时间截止为17:30)
- 咨询联络：(032) 455-7165 / http://lit.ifac.or.kr

对仁川好奇?
对仁川的多文化家庭好奇?
인천이 궁금하세요?
인천의 다문화가족들이
궁금하세요?



“多元之爱(DASARANG)”
通过互联网可以随时随地阅览
‘다사랑(DASARANG)’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仁川市媒体>

仁川市 多文化报 “多元之爱” (dasarangnews.com)
仁川市 市政消息报 “早安仁川” (goodmorning.incheon.go.kr)
仁川市 社会现场放送 “ON 通인천” (tv.incheon.go.kr)
仁川市 互联网新闻 “I-View” (enews.incheon.go.kr)
仁川市 媒体博客 “仁川N 乔伊” (blog.naver.com/happyyou)
智能手机应用程序 “仁川市媒体” (smart.incheon.go.kr)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다문화신문 ‘다사랑’(dasarangnews.com)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 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仁川市 SNS 인천시 SNS>

脸谱 페이스북 (www.facebook.com/flyic)

博客 블로그 (incheonblog.kr)

优兔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微博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故事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